

세계가 주목하는 조선의 《레아 아스》

전반적지역에 매장, 개발리용에 국가적관심

【평양발 정무헌기자】 조선에서 희토류광물자원의 개발리용을 위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작년 12 월에는 국가자원개발지도국을 국가자원개발성으로 승격시켜 국가차원에서 이 사업을 본격화할 체계를 갖추었다.

굴지의 매장량

국가자원개발성 김흥주부국장

조선은 세계굴지의 희토류매장지대로 일러지고있다. 일명 《레아 아스》로 불리우는 희토류는 화학원소주기표에서 란타노이드에 속하는 원소들인 원자번호 57 로부터 원자번호 71 까지의 15 개 원소들과 스칸디움과 이트륨을 포함한 계 17 종의 희소금속을 통털어 말한다. 희토류는 형광체, 자성체, 초전도재료, 컴퓨터 등의 전자공업, 불수강과 구조용합금강, 용수철강, 베어링강 등의 흑색금속공업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리용되고있다.

세계적규모에서 볼 때 희토류의 매장량은 함유량으로 1 억 5000 만톤으로 시산되고있다. 그중 중국이 9100 만톤, 로씨야가 2100 만톤, 미국이 1400 만톤, 또한 오스트랄리아와 인디아에 매장이 확인되어있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현재 조선에서 확인된 매장량은 함유량으로 약 2000 만톤에 달한다고 한다. 앞으로 이미 확인된 매장지에서 심부탐사가 이루어지거나 매장이 새로 발견되면 더욱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조선에는 세계적으로 보아도 손꼽이는 량의 희토류가 매장되어있는셈이다.

최대매장지역은 평안북도이다. 그외에도 강원도, 황해남도 또한 함경남도, 량강도 등 전반적지역에서 희토류의 매장이 확인되어있다고 한다.

국가자원개발성의 사명은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을 권고하는것이다. 성에서 희토류광물자원을 담당하는 김흥주부국장(62 살)에 의하면 최근에 황해북도에서도 새로 그 매장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그는 희토류의 개발리용에 령도자가 큰 관심을 돌리고있는데 대하여 말한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이제까지 여러차례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현재 조선에서는 희토류공업을 하루빨리 발전시켜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 적극 도입하는 한편 가공품들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방향에서 사업을 밀고나가고있다.》

합영합작도 장려

조선에서는 희토류광물의 채굴과 함께 탐사활동도 계속 추진하고있다.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유리한 지역에서는 세부탐사를 위한 대책들이 세워지고있다. 또한 과학연구기관과 해당부분에서는 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희토류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있다. 일부의 연구성과는 이미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 도입되고있다.

김흥주부국장은 조선이 세계굴지의 희토류매장지대라는것이 확인되면서 여러 나라 기업들이 관심을 표시하고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우리는 희토류의 개발리용을 위하여 우리보다 기술이 앞선 나라 기업들과의 합영합작도 장려하고있다. 여기서 견지되어야 할 원칙은 조선국내에서 가공하여 그 제품을 수출하는것이다.》고 강조한다.

조선에서의 희토류채굴은 해방직후로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당시는 가공공업이 발전하지 못한 탓으로 채굴한 희토류혼합광물을 가공함이 없이 쏘련으로 수출했었다. 그후 70년대말에 이르러 가공처리기술이 발전되어 그 공정이 점차적으로 정비되면서 국내에서 가공품을 생산할수 있게 되었다.

김흥주부국장의 말에 의하면 조선에서 희토류개발이 본격화된것은 9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그는 확보된 매장량에 비하면 그 작업이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희토류의 개발리용범위를 크게 확대할것》이라고 말한다.